

선문답,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제시

해외불교칼럼

다음 글은 <즐거워 떠나는 해탈의 길> <유머: 깨우침의 산파> 등 참선과 해탈에 관한 서구불자들의 저술을 인용 편집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스승에게 제자들이 지혜의 한 말씀을 남겨주시길 청하자 스승이 말한다. "진리란 강과 같으니라." 이에 한 제자가 묻는다. "진리는 강과 같지 않습니까?" 스승이 빙긋 웃는다. "그래, 진리는 강과 같지 않으니라." 가벼운 우스개 같은 이 일화는 때를 따르 갈라 작은 상자에 나눠 담으려는 본별심에 대한 경구다.

또 "한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면 무슨 소리가 날꼬?"라든지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면 그 나무는 넘어지는 소리를 낸 걸까? 안 낸 걸까?"라는 기이한 질문도 있다. 이처럼 일반상식과 논리로 대답하기 어려운 '참선해학'은 때론 그림으로도 표현된다. 발거벗고 방귀를 끼는 꼬마, 좌선을 하듯 쭈그리고 앉아 씨익 웃는 두

꺼비 등의 그림 역시 못 중생이 지닌 불성을 재미있게 가시화한 것이다. 참선해학은 서구불교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어느 미국선사가 제자에게 묻는다. "그대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가?" 그러자 제자가 되묻는다. "지금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즉,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내게 웬 질문이시죠? 라고 대뜸 되받아친 것이다. 선사의 어설픈 가르침에 대한 제자의 당찬 역습이다.

이렇듯 참선해학은 세파에 지친 중생에게 잠시 웃음을 주는 동시에, 심오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순간 전달하는 희극적 기습(comic surprise)이다. 흔히 불가의 유머는 승속(僧俗), 미추(美醜), 영육(靈肉), 우열(優劣) 등의 양분구조를 무너뜨린다. "붓다란 똥가?"란 질문에 "마른 똥"이라 대답한다. 그에 대한 불교학자인 콘래드 하이어즈의 명쾌한 해석이다. "이는 어느 누구든 무엇이든 높고 낮을 바 없다는 '영적 민주화'를 뜻한다."

참선해학의 요체는 희극적 반전(comic reversal)이며 대개 이런 투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게 똥가?" "죽은 고양이네." "왜지?" "아무도 그 값조차 알려고 인하

니가." 이러한 반전은 일반통념을 깨뜨리며, 이것저것을 비교 판단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 자체마저 우스개로 만든다. 극적 반전을 보여주는 옛 일본의 얘기다.

자기 상관을 처와 간통한 사내가 들롱이 나자 상관을 죽이고 그녀와 도망친다. 그러나 이내 그녀에 싫증을 느껴 내쫓아 버린다. 이러구러 세월이 지나 그는 속죄하는 뜻으로 마을사람들이 지나다닐 긴 땅굴을 홀로 파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십여 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상관의 아들이 검객이 되어 그를 죽이러 온다. 그는 검객에게 자신은 죽어 마땅하나 제발 땅굴을 다 뚫은 뒤에 죽여 달라고 간청한다. 검객이 아랑을 베풀어 기다려준 몇 달 동안 그는 더욱 열심히 땅굴을 판다. 그를 빨리 죽이고픈 마음에 검객과 함께 파기 시작한다. 그러다 검객은 어느덧 그의 강한 의지와 인내심을 존경하게 된다. 이윽고 땅 굴이 다 파졌다. 그는 검객에게 감사하며 이젠 죽여 달라고 목을 내민다. 그러자 검객이 말한다. "제 어찌 스승님의 목을 치리까?" 검객은 극악한 부친 살해범의 또 다른 면모, 즉 참된 스승의 표상을 발견한 것이다. 서로 대치하는 상극(Opposites)도

마침내 하나(Oneness)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얘기다.

참선해학은 분별(分別)의 벽을 무너뜨리며 상반(相反)의 강위에 결합(結合)의 다리를 걸쳐준다. 또한 참선해학은 강하고 닫힌 긴장감을 훌훌 털어내는 해방과 자유를 주는바, 이것이 곧 일종의 해탈(Liberation)이다.

젊은 제자가 스티브 앨런이란 미국선사에게 묻는다. "만일 모든 욕망을 다 들어주는 여의주를 갖으신다면 선사님께선 뭘 소원하시겠습니까?" 제자의 끝없는 욕망이 늘 마음에 걸린 선사가 대답한다. "욕망을 멈춰달라고 빌겠네." 그 말에 제자는 크게 깨우친다.

참선해학은 애써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라 다르마를 달리 전하는 방편이다. 그래서 장황한 서술보다는 대개 쉽고 짧은 문답형이다. 어느 외국청년이 내게 물었다. "하심(下心)이란 뭡니까?" "내려두는 것(put down)입니다." 그러자 또 물었다. "도대체 뭘 내려두죠?" 다시 대답했다. "그 의문마저 내려두는 것입니다."

번역: 성휴 스님

출처: Humor Function in Meditation 기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런 긴즈버그 ⑧

책 케루악 불문으로 이끌어줘

처음엔 저항문학의 동지로 만난 책 케루악은 긴즈버그를 불문으로 안내한 선배도반이기도 하다. 긴즈버그의 회고다. "그가 말했잖아요. '존재의 본질은 괴로움이며 불교의 4대 진리(Four Noble Truths), 즉 사성제(四聖諦) 중 첫 번째 가르침이다. 삶엔 괴로움이 있고 거기엔 까닭이 있다. 그러나 괴로움에는 멈춤이 있으며, 그 멈춤으로 이어지는 여덟 뉘의 고결한 행로(The Noble Eight-fold Path)를 팔정도(八正道)라 한다. 이는 불교수행의 기본방편인 '바른 삶'을 뜻한다.'" 근대 당시 저는 이를테면 좌경진보 성향의 자유지식인, 뒤 그런 거였죠. 그런 저한테 존재의 본질이 고통이니 뭐니 말하니까 참엔 짜증도 나고 모욕감도 좀 느껴요. 암튼 그는 그 답엔 다른 방식으로 불교를 설명했었어요. 그는 프랭크

나 대중공연 때 자주 불교성향의 명상을 악과 연불을 도입하고 때론 연주에도 직접 참여한다.

1956년 그는 미국의 기준가치관과 사회적 병폐를 그린 '울부짖음'을 발표하며 계몽적 저항시인의 대열에 합류한다. 이후 그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찬란한 동화를 도출한 '카디쉬와 다른 시' 등을 발표한다.

결작 카디쉬는 불행한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강박관념적인 연민.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 긴즈버그 자신의 내면에 새까만 콜라트처럼 먹지먹지 달라붙은 악령을 끌어내는 영적 카타르시스 내지 구마의식이랄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나 그는 카디쉬의 처연한 후속인 '하얀 수의'를 발표한다. 그처럼 그는 일생을 두고

'울부짖음'으로 계몽적 저항시인 대열 합류 비트닉 부디즘 '자아회복' 일깨우는 메시지

시나트라 열렬한 팬이었죠. 시나트라 내리까는 듯 당당한 발성, 명확한 언사와 자기표현, 그 모두를 무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삼귀의(Refuge in the Three Jewels)에 시나트라 식의 노래 가락을 넣어 읊어주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를 불문으로 향하는 두 번째 연등을 밝혀준 겁니다.

붓다에 나를 두어 쉬게 하나이다. 다르마에 나를 두어 쉬게 하나이다. 상그하에 나를 두어 쉬게 하나이다.

여기서 붓다라 함은 특정한 인물보다는 큰 깨우침을 상징하죠. 즉,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우주를 느끼는 경지를 말해요. 또 다르마란 깨우침의 상태를 내비쳐주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불경과 불교철학, 그리고 실천방편을 뜻합니다. 이어 상그하란 깨우친 분을 따르는 무리를 일컫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인연으로, 저는 비로소 불교의 섬세하고 오묘한 진리와 아울러 고통과 번뇌의 참뜻, 덧없는 제행무상의 참뜻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영원한 긴즈버그나 영원한 케루악도 존재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 후 긴즈버그 역시 자작시의 낭송회

어머니라는 이름의 가엾고 한 맺힌 여인을 가슴에 담고 싶었다.

다른 한편, 그는 대중연예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대표적인 음악인들로 비틀즈의 존 레논, 폴 매카트니, '바람 속에 들려오는'이란 반전가요로 유명한 밥 딜런 등 현대판 읊유시인들이 있다.

비트세대의 끝자락인 1974년 미국의 각계인사들은 비트닉 부디즘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미국 최초의 불교고급교육 기관으로 정규인가를 받은 나로파대학을 콜로라도에 설립했다. 긴즈버그는 이 대학에 도반이자 동지인 케루악의 신 계몽사상을 기리는 '책 케루악 해탈시문학부'를 설립하고 자신도 몇 년 뒤에 사망한다.

이렇듯 비트닉 부디즘은 과거원료의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문화조류다. 그 선구자들은 무작정 '믿습시다'라는 녹슨 키키의 뒷에 걸려든 중생에게 '자아회복'을 일깨우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

"신앙의 자유란 믿음의 자유만을 뜻할까요? 믿지 못할 건 믿지 않는 불신의 자유(Freedom Not to Believe) 역시 신앙의 자유임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글>

성휴 스님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Knowledge is one thing, wisdom another"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라니까

A proud priest, an expert on the Diamond Sutra, came upon an old woman selling tea and cakes on the road. The hungry priest wished to refresh himself, but had no money. He told her, "I have upon my back a treasure beyond knowing the Diamond Sutra. If you will give me some tea and cakes, I will tell you of this great treasure of knowledge." She knew something of the Sutra herself, and proposed her own bargain. "Oh, learned priest, if you answer a simple question, I will give you tea and cakes free." "Good enough." Then she asked, "When you eat these cakes, do you eat with the mind of the past, the mind of the present or the mind of the future?" Alas! No answer occurred to him, so he took the text of the Diamond Sutra out of his backpack, hoping to find the answer. As he studied and pondered, the day grew late and she packed up her things to go home for the day. "Tut, tut. Such an idiot!" She murmured as she left him in his quandary. "You eat the tea and cakes with your mouth, not with your mind.

Knowledge is one thing, wisdom another." <금강경>에 달통한 자부심이 강한 스님이 길가에서 차와 떡을 파는 노파에게 다가갔다. 그걸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싶은데 빈털터리던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 바랑 속에 <금강경>의 지혜보다 더 큰 보물이 들어 있소. 그 차와 떡을 좀 주면 내가 그 엄청난 지식을 알려주겠소." 자신도 <금강경>을 얼마간 알던 그녀는 나름대로 흥정을 걸었다. "예, 학식 높은 스님, 제가 여쭙는 쉬운 질문에 답을 주시면 차와 떡을 가져 드리지요." "좋소."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제가 차와 떡을 올리면 스님께선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때의 마음으로 드시렵니까?" 어라? 답이 도통 떠오르지 않아 그는 바랑에서 <금강경>을 꺼내 답을 찾아내려고 살살이 뒤적였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노파는 집에 돌아가려고 술을 좌판을 챙겼다. "쯧쯧, 아둔하진!" 그녀는 여전히 찔끔대는 그를 남겨둔 채 중얼대며 떠났다. "차와 떡은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거지.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라니까." 번안: 성휴 스님

UCLA 불교학회 심포지움 '불교미술연구현황' 주제

미국 UCLA대학의 불교학회는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교 하신연다고 직원클럽에서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연구센터가 공동주관하는 '불교미술연구현황'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심포지움은 UCLA 및 예일대, 뉴욕주립대 등의 김민규, 김선경, 소나리, 낸시 스타인하드, 필리스 그레노프, 코이치 시노하라교수 등 16명의 저명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6세기 동아시아의 불교건축, 굽타시기의 동남아불교미술사 등의 개별 주제발표 및 종합평가토론으로 이어진다.

출처: UCLA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성휴 스님이 이끌어온 해외면은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해외 불교계 소식을 다양하게 전해준 성휴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행의 결실 '지묵스님 전집'

깊이 있는 내용과 함께 독특한 개성과 진솔함, 해박한 지식이 그대로 녹아 있는, 문상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듯 거침이 없는 지묵스님

지묵스님은 수행정진 틈틈이 글쓰기를 하고 수련회와 방송을 통해 불법의 생활화와 참선을 강조해 온 까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원願 때문일 것입니다.

<지묵스님 전집>의 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알기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지묵스님의 뜻이 더욱 드러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 행복한 삶과 정토사회 이루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리며 마음모아 <지묵스님 전집>을 엮어내는 바입니다.

- 01 죽비 깎는 아침 02 인도순례기 나마스떼 03 봉주르, 길상입니다 04 달마와 혜능 05 초발심자경문 강설 06 육조단경 강설 07 산승일기 08 날마다 좋은 날 09 노스님의 젊음 10 비운 뒤에 무성한 조롱박 넝쿨